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AN 17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 1032 1983년 1월 1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January 17,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오샤와에서 나이아가라폴까지의 골든·호스슈지역

산업쓰레기처리장 설치

주민반발이 큰 문제될듯

온타리오주는 3년내에 오샤와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의 골든·호스슈(Golden Horseshoe)지역내에 적당한 장소를 지정, 산업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온타리오 쓰레기관리공사 대표 도날드·찬트씨는 13일 산업쓰레기 처리장은 1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챈트씨는 골든·호스슈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산업쓰레기의 약 70%가 온타리오주 남쪽에서 나오며 또 이 지역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의 약 58%가 액체이다.

골든·호스슈지역은 오샤와로부터 토론토, 미시사가, 밀톤, 해밀톤, 세인트·캐서린등이 이에 속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연간 150만톤의 산업쓰레기가 생기며 지금까지 쓰레기 관리공사는 년간 15만톤 내지 35만톤의 쓰레기를 처리했고 나머지는 각 회사들이 처분해왔다.

쓰레기 관리공사는 81년 설립됐으며 주정부가 승인한 사우스·카유가의 307헥타(760에이커)의 부지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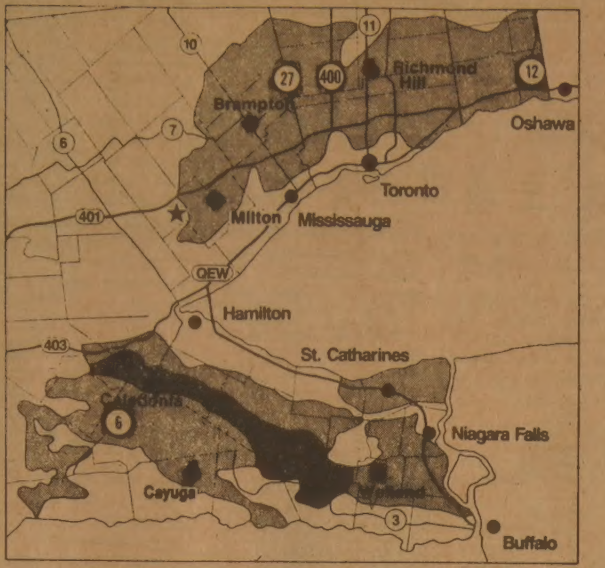
챈트씨는 오는 4월까지 부지가 결정될 것이며, 환경 평가위원회와 온타리오주 시정위원회의 청문회가 12월말경 있을 것으로 보이며 쓰레기처리장 총공사비는 1억달러 정도로 최종 건축허가후 2년뒤에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장 시설에는 소각로, 화학처리공장 등이 포함된다.

챈트씨는 쓰레기 처리장이 골든·호스슈지역 남서부 온타리오와 런던 서쪽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최우선지는 산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처리장의 위치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온타리오주 산업쓰레기 처리장 후보지역: 연한부분은 유동성 화학물질 쓰레기 처리장의 가능지역이며 검은 부분은 지질이 쓰레기 처리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 문제에 대해 챈트씨는 "어디엔가 쓰레기 처리장은 세워져야 하며 누군가는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윗트비 시장 밥·에터슬리씨는 어디로 정해지던간에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키를 즐기는 찰스 황태자부부

◆로열·스키: 영국의 찰스황태자가 부인인 다이애나 공주에 스키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렉에서 겨울휴가를 즐기고 있다.

금년도 우대금리 10% 선

컴머스은행 전망

앞으로 2, 3개월간 이자율은 더 떨어져 우대금리가 10%선까지 내릴 것이라는게 은행가들의 전망이다.

컴머스은행의 벤·제스트린 부사장은 내년도까지 우대금리는 10%선에 머물 것이며 적어도 앞으로 1년간 금리의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컴머스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인플레이션율은 7.5%에 머물 것이며 캐나다 무역도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이다.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캐나다의 주요 원자재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는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캐나다달러의 대미환율은 80~83센트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1주전 떨어졌던 중앙은행금리는 13일 현재 9.74%에 그대로 머물렀다.

"외채 상환 능력 위험수준 아니다"

김부총리 논평

(서울13일=연합)김준성 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13일 외채상환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은 82년부터 시작된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해야만 될지도 모른다는 최근의 외신보도에 논평, 한국의 외채상환능력은 결코 위험수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협 총리가 해외공관장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회 석상에서 김부총리는 외채로 세워진 중화학산업체의 많은 수가 현재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외채상환에 따른 문제는 70년대 하반기 만큼은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현재 360억달러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은 74년의 제2차 오일·쇼크에 뒤따른 중화학산업에의 과다투자에 따라 70년도 하반기에는 외채상환에 대한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김부총리는 말했다.

▲알림▲

오늘(10일자) 모국판은 항공운송관계로 원본이 도착되지 않아 발행되지 못하고 토론토판 8면만 발간합니다. 10일자 모국판 한국일보는 11일자에 합본발행합니다.

◁금주의 행사▷

(1월17일~23일)

◆21일(금)~23일(일) 저녁 7시
옥인걸교수 발성법 강의(Voice Workshop)
곳: 빌라멜비아 장로교(7 Gretha Ave.)
연락처: 278-4694, 274-8503

◆21일(금)~23일(일) 저녁 7시30분 사경회
성도교회 주최
곳: 87 Elmhurst Dr.

◆22일(토) 저녁 7시 경주이씨 종친회 신년모임
곳: 472 Valleyview Cr, Milton
연락처: 451-4450, 876-1702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란콤화장품 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社 告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스키를 하시면 겨울이 즐겁읍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라고들 말하지요.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일보사와 스키협회는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다운힐·스키(알파인·스키) 강습회를 가집니다. 스키강습겸 가족관광을 겸한 이 강습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때 : 83년 1월28일(금)출발, 30일저녁 귀가(2박3일)
◆ 곳 : 몽·트랑브랑(Mont Tremblant)
(몬트리얼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회비 : 1인당 $219.00/14세미만 아동 $179.00
(왕복 대절버스편, 2박 호텔료, 아침·저녁 총 4회 식사, 환영파티, 스키·리프트 사용료, 안내원 동승, 스키지도 포함)

◆4인 1실 사용 원칙.
◆스키 렌트비는 별도.
◆선착순 40명
◆신청처: 한국일보사(533-2361)
브랜든스포츠(598-3732)
세방여행사(928-3335)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스키협회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푸가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여러분을 백만장자로 모실,
■토론토의 새 명물『세방』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요.
세계방방곡곡으로 안내할 세방여행사가 인사드립니다

한국서부터 쌓아온 여행사경력과
이곳 대학서 공부한 관광(호텔)경영학 지식을
합쳐 정말로 교민의 인생을 즐겁게 할…
여행이라면 마음놓고 맡기실 여행사「세방」을
친지, 선후배 제현들께 삼가 소개합니다.
새해인사를 곁들여
교민 여러분들께 큰절 올립니다.
대표 유승민 배

관광여행업무안내
□항공권판매 : 모국방문·캐나다·미국등 모든항공권 취급
□여행수속대행 : 모든 여권업무와 비자서류 번역및 작성
□유학생상담업무 :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각종대학 입학허가서 취득및 유학비자수속 대행
□관광업무 : 금번 한국일보사의 스키강습회를 비롯, 각종 관광단을 모집 예정이며 한국방문객들을 위해 나이아가라등 온타리오의 각종 관광업소를 실비로 안내.
□호텔·렌트카 예약

세방관광여행사
SEBANG-GLOBA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104
Tor. Ont.
☎ : 928-3335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파괴된 소련 핵추진위성
한반도추락확률 37,000분의 1

(서울14일=연합)한국의 파학기술처는 14일 소련의 핵추진 코스모스 1402 위성이 이달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위성의 파편이 한반도 부근으로 떨어질 확률은 약 37,000분의 1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1일 파학기술처는 위성의 파편이 한반도 부근에 떨어질 공산은 10,000분의 1이라고 밝혔다.

파학기술처는 위성의 잔해가 14일 현재 지상 219에서 229킬로미터의 궤도를 따라 매 89분마다 지구를 한바퀴 돌고 있으며 16일 오전 6시30분(GMT)경에는 일본 남단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성은 3부분으로 봉피, 일부는 타버렸고 핵원자로의 중요 부분이 매일 16킬로씩 성층권 부근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인트·로렌스에 새 오페라하우스

세인트·로렌스마켓 부근에 토론토의 새 명물 오페라하우스가 생길 전망이다.

국립발레단과 캐나다오페라공사는 그동안 각급 정부의 지원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 마땅한 자리를 물색해왔었다.

온타리오 호수 부두가의 세인트 로렌스지역에 세워질 이 오페라하우스는 9천만달러짜리 건물로 현재 아랍·어소시에이츠회사가 부지선택및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부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건물모양이나 구조는 정해지지 않는다.

세인트·로렌스 지역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설만한 곳은 자비스와 프론트 스트릿의 세인트·로렌스 마켓 동쪽의 현재의 파킹장 자리나 세인트·로렌스 마켓남쪽의 현재의 공장자리등 두군데가 유망하다.

토론토 시청의 한 소식통은 "세인트·로렌스 지역에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는데 유일한 문제점은 시소유인 이 지역이 주택지로 구획됐다는 점이다"

다운타운이며 오킹센터, 세인트·로렌스센터와 가깝다는 것이 큰 이점이며 파킹시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토론토시는 프론트·스트릿 남쪽에 2천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파킹장을 짓고 있다. 현재 이 부근지역의 파킹장은 약 1,500대를 소화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산업쓰레기 처리장

◆오샤와

오샤와의 존·에이커 재정관도 웨트비시장의 의견에 동의, 불법적으로 아무데나 화학 쓰레기를 버리는 사태 때문에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관리들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입장에서 쓰레기관리공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사가

헤이즐·매칼리온 미시사가시장은 미시사가 시내에서 쓰레기처리장을 세울만한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미시사가처럼 고도로 도시화한 지역에 산업쓰레기 처리장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일돈

케일돈시장 존·클락슨씨는 인구 2만8천의 지방마을 케일돈에는 폐수처리장을 할만한 공간이 없으며 환경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밀톤

옥빌 북쪽의 밀톤의 시장 고든·크랜츠씨는 자기 관할구역내에 액체 공업폐수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환영치 못할 일이며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밀톤시는 지난 7년간 싸워 왔다고 말했다.

항공요금 대폭 할인
CP 에어와 에어·캐나다

CP Air는 13일 토론토-밴쿠버간 논스톱 노선 요금을 60% 디스카운트·세일하며, Air Canada도 토론토-LA, 샌프란시스코의 직행노선에 대해 2, 3월 두달간에 걸쳐 반값에 세일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CP Air의 토론토-뱅쿠버 직행노선 왕복요금이 현재의 $728에서 $289로 세일되며 어린이요금도(12세 미만) $20 더 디스카운트된다. 이 요금은 다만 수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발하는 승객에 한한다.

CP Air 대변인 리터·골딩씨는 "이 요금은 반드시 14일전에 예약과 함께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 캐나다도 캘리포니아주 노선은 $411에 세일한다고 발표했다. 항공요금세일은 주로 비성수기에 실시된다.

— 북한 —

IOC 회의 참가가능

(워싱턴 13일=연합)미국정부는 이달중에 LA에서 개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에 북한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무성 대변인은 13일 "미국이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국내올림픽위원회의 임원이 IOC회의및 게임과 관계된 각종 활동에 참여는 물론 올림픽게임 자체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적 속담풀이〉 오강남 박사(종교학)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⑤

균형잡힌 삶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는데 누가 뭐랄까」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가게를 하고 있는 A씨의 입버릇이다. 그러면서 그는 밤낮으로 일을 한다.

개처럼 번다는것, 정승같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개처럼 쏘다니며 물고 뜯고, 빼어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잡이로 벌어들이는 것이 개처럼 번다는 것인가? 이윤의 추구라면 체면이니 인륜이니하는 것은 뜯어 엎어놓고 수단방법을 다해, 한푼이라도 더 모으고, 그리고는 남보란듯이 떵떵어지게 거들먹거리며 살아보는 것이 정승처럼 산다는 것인가? 쓰는 방법만 멋지면 버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방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벌었느냐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흔히들 양심에 거리끼는 방법으로 번 돈이지만 일부를 자선사업이다, 육영사업이다, 교회헌금이다하는 것으로 바치기만 하면 과거가 모두 정당화 될 것으로 믿는다. 그뿐 아니라 버는 과정에서 개같은 짓을 많이 하므로 사람들에게서 개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 이런 거창한 회사금을 통해 광발을 잡으므로 사람들에게 한번 정승처럼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런식 사고방식은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사는데 불과한 것이 아닐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는 말에는 비록 개처럼 성실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고 하드라도 버는 것 자체로서는 충분할 수 없고 정승처럼 사는 것이 뒷따라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다. 삶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희랍말로는 「비오스」와 「조오에」- 영어로 "Make a living"과 "Live a life"라는 것 쯤에 해당한다고 할까. 전자는 생물학적 경제적 삶이고, 후자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두가지 삶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인 것처럼 생물학적, 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신적·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물학적, 경제적 삶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적 삶에 불과해지고 만다.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생물학적, 경제적 삶은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같이 버는 것만으로는 개같은 삶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정승같은 삶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같이 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때 인생은 그 의미를 잃고 만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살라는 것- 직업의 귀천같은 것을 따질 것 없이 무슨 일에나 성실하게 임하므로 번것을 밑거름으로 하여 너와 나 모두의 아름다운 삶을 이룩하라는 것- 비오스와 조오에가 합일하는 균형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양로원 일원화모임 발언내용 발췌〉

갈보리측, "안목사 직접관련 없다"

"오늘모임 보도 금지하자" TKCRCI
"갈보리 의견 무시하자" 노년회장

12일 7시30분부터 약 9시30분까지 한인회관에서 거행된 제2차 양로원 건립운동 일원화모임의 기록을 발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화내용중 별 의미가 없는 일부 부분은 지면관계로 생략했음을 밝힌다.

박인순회장: 사실상 이런 일은 새회장단이 해야할 일이나 아직 공식 인계가 안되었고 일의 성질이 자꾸 지연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이게 했다.

우선 오늘 불참한 갈보리교회 건립위측의 편지를 읽어보겠다.(편지 전문 오정숙 한인회간사 낭독)

갈보리측 편지내용요약: 「선약이 있어 못오지만 일원화 움직임은 기쁘게 생각하며 한인회 주도보다 납득 동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이 일원화작업을 추진해 줄것을 바란다.

안병찬 목사는 상임이사의 일원일 뿐 이 사업에 직접 관련이나 책임이 없다. 따라서 모든 공문발송및 연락은 김대억위원장이나 홍보부장 장기번씨 앞으로 하라. 한인회가 보낸 서신은 판인도, 서명도 없어 공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차후에는 적합 절차 취하라.

천중환위원장: 처음에 와이즈멘즈클럽이 주동이 되긴 했지만 범교민적 행사로 추진하기위해 최근 정관에서 와이즈멘즈 멤버가 이사회의 절반을 구성한다는 규정을 빼버렸다. 갈보리측과의 일원화 모색은 의견의 일치를 못보았고 동부측과는 이미 통합의사를 통지받았지만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말이 없었다.

강기웅씨(TKCRCI측): 처음에 우리는 한인위측이 너싱·홈(Nursing Home)을 추진하는 줄 알았고 우리는 노인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는 줄 알고 조용히 추진했다. 이미 CMHC에 신청, 콘설턴트까지 고용해서 일을 추진해왔다. 뒤늦게 한인위측이 너싱·홈과 노인아파트를 함께 추진한다 해서 언제든지 통합·양도하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양측이 추진해 온 것을 살리는 방향에서 통합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체이름에서 "크리스천"이란 말을 뺄 용의도 있다.

실무자들끼리 만나 통합하겠다.

천중환·나상선씨: 지금까지 한인위측이 교민들께 홍보를 잘못했다면 그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한인위는 애초부터 범교민적 공개행사로 추진해왔다.

박회장: 일부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미 다된일을 뜯어내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천위원장: 우리는 애초부터 온타리오주정부 당국과의 긴밀협의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 갈보리측이 이미 CMHC로부터 1천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는 주장은 웃음이 나올 일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쉽게 그랜트를 받게된다면) 양로원 건립추진이 두개 세개면 어떤가. 12월21일 현재 CMHC가 밝힌 바로는 갈보리측은 그랜트 신청을 확인하는 편지 1통을 받은 이외에는 CMHC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은것이 없다. 84년에 착공, 85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갈보리측은 필수조건인 비영리단체, 법인체등록도 끝내지 않았다. 이는 CMHC의 데보라·라잇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단체중 제일 먼저 신청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내는 갈보리측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다치고 싶지는 않다.

나씨: 온타리오주내의 양로원 건립은 주정부 사회부의 협조없이는 어렵다. 사회부의 관리들과 합석한 자리에서 컨피멘셜한 서류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홍순관 목사도 분명히 동부장로교회 주택위원회 위원에 포함돼있었다.

강기웅씨: 거기에 관해 해명하는데 지금은 홍목사도 교회도 아무 관련도 없다. 명칭도 Toronto Korean Christian Retirement Community Inc.라는 별개의 명칭으로 되어있다. 통합하는데 필요하다면 명칭중 "Christian"이란 단어는 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씨: 서두르고 싶진 않았지만 하도 문제가 많아 이미 지난 12월30일 우리도 CMHC에 신청했고 확인통지를 받았다.

강씨: 그렇다면 둘중 한 단체가 신청을 취소시키는 수밖에 없게 됐다.

구상회박사: 우선 갈보리측의 의견을 들어 보기는 해야겠다. 그쪽에서 공개치 못할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더 만날 기회를 가져보는게 좋을듯 하다.

나씨: 지금까지 한인위측과 갈보리측과의 대화는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TKCRCI측이 접촉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조영호씨: 그쪽 의견은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같다.

박회장: 그래도 잡음없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애써 보는게 좋겠다.

장순채 신임회장: 한인회의 편지에 관인이 없다는 그쪽의 주장은 좀 억지이다. 한인회는 관청이 아니다.

그러나 그냥 2개 단체만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일이다. 뻔히 내용을 알아도 어느 교회 내막을 공중앞에서 터뜨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천씨: 그렇다면 어떤 단체가 양로원 건립운동을 할 때마다 매번 통합회의를 해야하는가?

에드몬톤에서도, 또 다른 교회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박인순회장: 시간은 자꾸 간다. 의견을 좀 모아야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세분의 의견을 들어보자.

조한철박사: 갈보리측의 의견도 들어보자

조병선씨: 어쨌건 일은 빨리 추진시키는게 최고이다.

구박사: 서둘러서 일을 하기 보다는 통계자료를 통해 연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세대가 달라지면 양로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건립계획추진이 여러면에서 유리할것 같다.

전태균씨: 갈보리측에 신경쓸 것 없이 한인위측은 계속 추진하는게 좋겠다.

박회장 : 오늘 참석한 두 팀의 대표와 두명의 중재인사들이 사적으로 만나보면?

강씨: 한번 더 모임을 시도해보고 결과가 없으면 통합해서 추진하자.

박회장: 전태균, 구상회, 조영호 세 분과 두팀의 대표가 갈보리측과 모임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모임의 결과는 일단 한인회에 알려주고 결과에 따라 추후 방향을 결정하자.

송승박: 그렇다면 오늘 모임의 결과를 발표않는것이 좋지않을까?

오늘의 대화내용이 발표되면 갈보리측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진않을까 우려된다.

강씨: 오늘 모임의 결과중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분은 보도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일부 신문의 보도에 문제가 많았다. 처음에는 동부장로교회가 백·그라운드가 되서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엄연히 명칭도 다르고 교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박회장: 기자들 질문 있는가?

토론토·한국일보: 지난 1차모임에서 참석치 않았던 "동부"측이 참석한 것이 오늘 모임의 성과라면 성과이다. 오늘 두팀이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했지만 그전에도 원칙에는 합의하나 구체적 방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 "동부"측의 통합조건은 무엇인가?

강씨: 한인위측도 CMHC에 이미 그랜트신청을 했다고 하므로 이제는 둘중 하나가 신청을 취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만약 진정 한인전체를 위한 작업이었다면 "동부"측은 왜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시켜왔는가?

송승박씨: 일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한인전체에 혜택이 될지 안될지도 몰라 발표를 못했었다.

코리언·저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한인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돕겠다.

박회장: 그러면 오늘 안 나온 갈보리측의 김대억씨, 안병찬씨 두분과 "동부"측의 강기웅씨, 한인위측의 천중환씨, 그리고 구상회, 조영호, 전태균 세분이 일원화 추진위원이 되어 다시 한번 모임을 갖기 바란다.

결과는 2월5일 이전 한인회에 알려주고, 소집책임자로 전태균씨가 수고해주시기 바란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9>

출발 ㉚

女子살해후 제5의 사나이 서울로…

『1만 달러만 주세요.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너무 많아.』

그는 여자를 믿을수가 없었다. 여자뿐 아니라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불쾌한 아침이었다. 더구나 스타트에서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길이 불길하다는것을 예고해주는 것만같아 그는 기분이 언짢았다.

『경찰이 오고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정말이라니까요.』

그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는 손바닥을 칼날처럼 세워 그 모서리로 여자의 목을 후려쳤다.

『아!』

여자는 짧게 비명을 지르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목을 다시 한번 힘껏 내려친 다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죄었다. 조금 후 여자의 몸은 축 늘어졌다.

그 다음의 그의 행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첩했다.

그는 여자의 시체와 소지품들을 침대밑에 처박은 다음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을만한곳을찾아수건으로정성들여 닦았다. 그리고 즉시 방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문이 열리고 남자 두 사람이 내렸다. 서둘러대는 품이 경찰 같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밑으로 내려온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사사끼·고로오의 패스포트를 찢어 발겨 변기속에 집어넣고 물을 틀었다. 숙박카드에 그 이름으로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이제 그것은 쓸모가없었다.

그는 얇은 고무장갑을 낀 다음 가방속에서 조그만 튜브를 꺼내 손바닥에다 약을 짰다. 그리고 그것을 넓게 펴서 머리에다 바르기 시작했다. 잿빛머리는 얼마후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다시 기름을 바른 다음 빗으로 머리칼을 빗어넘겼다. 머리칼을 올백으로 빗어넘기고 나서 잿빛 콧수염을 떼어내고 그 대신 검정 콧수염을 달았다. 금테안경을 선글라스로 바꿔 끼었다.

15분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화장실을 나왔다.

로비를 걸어가면서 보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두사나이가 프론트 앞에서 프론트맨과 이야기하고있는 것이 보였다.

밖은 잔뜩 흐린날씨에 바람까지 불어대고 있었다.

그는 10분쯤 걸어가다가 JAL여행사로 들어가 2시간후에 출발하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잠시 후 그는 최고급 식당에 앉아 아침겸 점심을 먹었다. 그러나 조금 먹다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여자를 죽인것이 가슴에 박혀 음식을 토하게 한것이다.

그는 직업적으로 사람을 죽여오긴 했지만 여자를 죽여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자를 죽이다니, 나도 볼장다본 모양이지,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계속 토했다.

입을 씻고나서 화장실을 나온 그는 식사를 포기하고 카운터로 가서 식사대를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다.

택시가 와서 멎었다.

『공항으로 갑시다』

한시간후 그는 중국 국적의 왕왕치(王王治) 라는 이름으로 출국수속을 마쳤다. 아직 시간이 꽤남아있었기때문에 그는 스낵코너에앉아 코피를 천천히 마셨다.

한시간후 그를태운 JAL보잉기는 나리따공항을 이륙했다.

朴男 그림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이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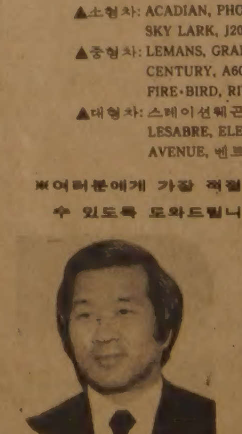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현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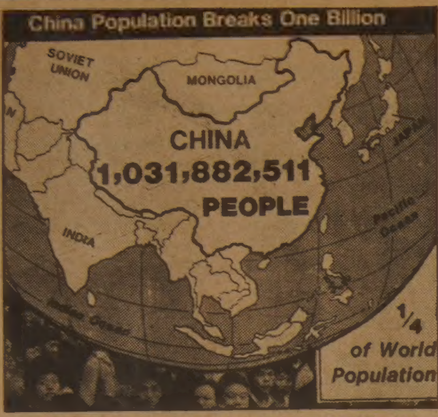


조 외 훈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超滿員아시아 2천年엔 34억

亞·太經·社委 18년내 人口9억증가 전망



▲중공의 인구는 10억을 넘어 세계최고. 중공뿐 아니라 아시아각국의 인구는 급격히 팽창 2천년엔 34억을 육박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앞으로 18년내에 급격한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주택및 직업난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같다.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최근 방콕에서 발표한 한 자료를 통해 현재 25억의 아시아인구가 금세기말에는 약34억으로 급증할것이라고 추산했다.

ESCAP은 이 자료에서 아시아여러나라가 늘어나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메우기 위해 모든 능력과 노력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자체가 파탄직전의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끌려 갈것으로 내다봤다.

ESCAP관리들은 『앞으로 18년동안 계속될 인구의 대규모 증가는 식량공급을 어렵게하고 도시의 인구과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것이며 주택을 비롯한 학교및 기타 생활필수품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상대로 9억의 인구가 증가한다면 아시아에 또하나의 중공이 탄생하는 셈』이라는것.

또하나의 中共 탄생하는셈 食糧·住宅·職業難 부채질

ESCAP의 이같은 암담한 전망은 지난9월 스리랑카수도 콜롬보에서 2백50여명의 각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SCAP주최 제3회 아시아·태평양인구회의에서 제기된것.

각국 대표들은 10일간의 회의를 통해 아시아가 안고있는 인구급증문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및 도농간의 불공정한 격차등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

이 회의는 대책건의를 첫째 각국이 현존하는 기아·영양실조·문맹및 불량한 주택문제등의 해결에 역점을 둠으로써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국은 출생률억제, 농촌개발, 대도시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건설및 농한기에 농민들에 부업을 알선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주정부 축구사항으로 한 부부가 2명의 아이만 낳음으로써 출생대체율이 제로가 될때까지 인구증가율을 감소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아시아지역의 평균인구증가율은 오는 18년동안에 현재의 1.7%에서 0.8~0.9%까지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회의에서는 출생률 억제를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는데 ESCAP관리들은 투자녀갖기운동이 인도·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지키기힘든 일임을 인정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보통 1가족이 5~7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도 대단히 높아 약2~3%에 달하고있는 실정이다.

81년도 서울에서 열린 미스·유니버스대회때 세계최고의 미녀로 뽑혔던 손·웨멀리양이 6백만불의 사나이 리·메이저즈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

올해 42세인 메이저즈씨는 전부인 파라·퍼셋과 헤어진 후 여러 여성들과 교제해 왔으나 22세의 웨멀리양과는 결혼에까지 이르럴 것으로 측근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들은 TV극 〈더·폴가이〉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웨멀리양은 메이저즈를 만나자 마자 전 보이·프렌드인 샌프란시스코 49ers 풋볼선수 드와이트·클락을 버렸다.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자녀가 함께읽는 시리즈

사춘기를 맞는 자녀와 부모간에는 외부로 나타나거나 안나타나거나를 막론하고 여러가지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아이」가 아니고 충분히「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어림도 없이「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쪽이 다 옳을 수도 있고 양쪽이 다 틀리기도 한다. 즉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은 아이도 아니거니와 어른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가능하다면 부모는 자녀를「어른」이라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아이」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준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대인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부모가 그들을 어른이 된것으로 생각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춘기 異性교제 成人의 한過程

부모로서는 어쩌면 서운할지 모르나 기왕 언젠가는 독립해 나가야 하는 그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야하는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함이 마땅하므로 아직은 부모가 건전하고 젊었을때 그들이 힘껏 발돋움해서 현명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부모는 그런것을 원하지 않고 따라서 강력하게 이를 거부한다.이유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을만큼 어리다는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순리대로 가게되어있다. 남녀는 서로가 서로에 이끌리게 되어있는 것이다. 사춘기의 도래가 과거보다 빠르고 또 우리는 자유국에 살고 있으니 이나이가되어 이성교제를 하고자 원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공부,공부,공부로 일관하여 대학입학을 향한 공부만을 생각하는부모의 초조함이 이들의 자연적인 욕구를 역행하려 하지만 순리는 순리. 역행은 실효를 거둘수있게 하지않는다. 억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마음이 갈 데로 가고 있는 아이의 몸만을 붙잡아 두어야 할일이 아니기 때문인것이다.오히려 그들의 욕구를 적당히 받아들여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하고 그런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하고 해 준다면 아이에게도 불평이 없고 억제된 호기심이 작용하여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2중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용기가 필요한데 요즘의 부모들은 이용기가 부족한 것 같다.

감지능력 강연회 싸이언스·센타

온타리오 싸이언스센타는 1월31일 오후 8시, 대강당에서 F.O.S.T.E.R.(온타리오과학·기술·연구의 향상을 위한 협의회) 주관으로 헨리·고든씨를 초청하여 초감각, 감지능력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 모임에서는 ESP의 존재, UFO의 실체, 점성술의 과학성여부, 죽음후의 세계등 흥미진진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 실제 시범도 있을 예정이다.

헨리·고든씨는 유심론마술사로서 저작과 강의, 방송출연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계의 권위자이다.

협회는 관심있는 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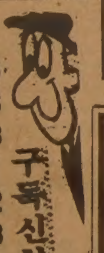
입장료는 성인이 $3이고 노인과 학생은 각각 $1,50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429-4100으로 연락바란다고 한다.

전백악관 변호사 2년징역형 宣告 위장결혼주선 혐의

〈샌디에고 〉전닉슨행정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빌러·스패로우3세(37)가 필리핀계 외국인에 대한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로 미지방법원에서 10일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구독신청은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가족 관계
▫영주권 관계
▫유학생 및 여행비자등.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Consultin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83-84년도
토론토
한인업소전화부가
곧 발행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업주,교회, 각 학교동창회, 은행, 각종단체(영리·비영리) 의사등은 광고국으로 연락 바라겠읍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인업소 전화부(책자) 발간에 한분도 빠짐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
광고국장 송 광 호
☎: 533-2363

Park Avenue Academy
◉한국학생들을(외국) 위한 대학입시 준비과정및 TOEFL반(GRADE 12-13)교실.
◉83년 입학 1월, 3월, 6월, 8월, 10월에 수업시작됨.
(주소) 60 Berl Ave, Toronto, Ont, M8Y 3C7
★6개월 영어코스.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수시로 입학가능. 우수한 영어교사진으로 책임지도함.
(주소) 2360 Dundas St, West, Suit 322B
Toronto, Ont, M2P 4B2
◆한국서울사무소◆
C. P. Box 1755 Seoul
Tel: 743-2111(교)-4
Telex: MOCNDM K23231 Ext. 79954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서 입학수속이 가능함)
CENTRAL CANADA COLLEGE가 폐교됨으로 전원 본교에서 편입하였음.
★자세한 문의사항은
(416) 259-5411
Mr. Lee 그리고 Mr. Rick

부산중·고교 동문회
신년파티
부산중·고등하교 동문들이 다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3년 1월22일(토) 오후 6시
장 소: 25 Pettit Dr. Weston, Ont. (키플링×west way)
연락처: 249-4595 Mr. 허
743-5830 Mr. 심
부산중·고교 동문회

독 자 페 이 지

투고 환영

투고희망자는 다음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고자의 성함·주소·전화번호 명기.
(2)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3)개인의 명예나 사업을 근거없이 훼손하는 내용은 사절.
(4)게재여부및 가필정정등 편집권은 본사에 있음.
(5)일단 접수된 원고는 본사보관이 원칙임.

— 편집부 —

인간 시장

이 상 태(미시사가 거주)

대낮에 촛불을 들고 이거리 저거리를 두리번 거리며 다니는 거지철학자를 이상히 여긴 사람이 "당신은 이 대낮에 촛불을 켜들고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일세"라고 대답한 일화를 기억한다.

한마디의 이 의미심장한 말.

삶이란 파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인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극에 달한 공포의 과학문명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창조한 또하나의 가공할 인간의 죄임이 분명하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파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메카니즘에 자리를 빼앗긴 인간은 처량한 집시의 신세가 된지 오래다. 길이나 모양과 색갈로 규격화된 인간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의식불명의 골짜기에서 헛소리를 쳐대고 있다.

잃어가는 인간성을 아쉬워 해야 되는 인간의 비애. 이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 속에 방향감각을 잃은 나침판의 바늘은 361도를 가리킨채 정지된지 오래다.

또한 황금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 정가표를 목에 건채 진열장에 전시된 인간이란 이름의 상품.

생존경쟁이란 이름 아래 바겐쎄일이란 간판을 내건 인간시장.

「25시」란 제목의 영화 주인공 "안소니·퀸"의 그 야릇한 미소를 오늘은 몇번이나 흉내를 내야 저녁이 올것인가.

너와 나의 잃어버린 인간미를 되찾아야겠다. 아직도 너와 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포도주와 사람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는 프랑스의 속담은 너와 나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생각해 보자.

인간이란 물리적 형체라기보다 그 안에 담겨진 무형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전능이 있다면 오늘도 이골목 저거리를 헤메고 있을 옛 희랍철인의 손에서 촛불이 다 타기전에 나는 너와 나를 위한 또 한자루의 촛불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다.

눈이 내린다

서 윤 정(토론토 거주)

사나운 바람은 가끔가다 웃는다.
조용한 하늘은 우릴 포용해 주고
말이없다.
도무지 말이 없어
침묵은 소리없이 변화돼 가는구나.

어지럽힌다.
누군가 뜨겁게 숨을 들여 마신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여자. 인간이여
사람이어라.
누구든 모두다 사람이라.

눈이 내린다.
싸늘한 냉정을 싣고 세월은 간다.
속이 탄다. 배도 고프고.
찡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속이 바쁘다.
많은 사고가 날 때리고 어지럽힌다.

또 다시 피곤하다.
기회가 없다.
아냐 만들어야지.
무언가 찾고 싶다. 그리고 난.
또 자신을 반성시키고 있다.

민 족 혼

김 덕 수(오샤와 거주)

우리말의 필요성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어디에서건 영어의 부족함이 항상 나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 자식에게만은 되풀이되게 하고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될 문젯점들을 동반해왔다. 하나는 2세, 3세들이 보여주는 현실상이요, 둘째는 내가 직접 느끼고 겪은 잡다한 일들이다.

캐나다에서는 2세들이 거의가 갓 성장 단계에 있지만 미국만해도 그렇지 않다.

K군은 올해 24세,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민 3세다. 아버지는 대학 조교수며 어머니는 큰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유복한 집안에서 그는 자랐다. 아버지, 어머니마저 한국말을 할수 없으니 집안의 통용어는 영어 뿐이었다. 풍습도 언어도 완전히 미국인화 한것이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22년을 자라온 K군이 한인교회를 자기발로 찾았다. 몇개월후 K군은 목사님에게 신상에 관해 상의했다.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는 미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이민 3세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풍습도 언어도 심지어 음식마저도 모두 미국식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의식적으로 나를 피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모이는 한인교회로 왔는데 한국인들마저 나를 기피하니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설 땅은 어디냐? 미국인사회에서는 피부색이 달라 도외시되고 한국인사회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 소외되고…하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20여년전 광부라는 이름으로 독일을 거쳐 이곳으로 왔다. 내가 겪은 수많은 일들중 나쁜 것만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않아 나는 자식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큰 문젯점이 바로 2세들에 대한 자기발견의 교육이다. 자신이 서야할 땅을 찾게해 준다는 뜻에서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래전 나는 여러 학부모와 상의 끝에 세종한글학교를 창설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학교가 지금껏 지탱해 왔다는 것은 모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자모님들의 공통된 일치감에서이리라.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세들의 모국방문단을 인솔했던 일이다.

모국 하계학교 방문단의 구성원은 미국, 캐나다, 서독,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자녀 총 268명이었다. 캐나다 단원은 43명이었다.

교육내용은 교육 1주, 관광 1주로 나누어지고, 교육에서는 문화, 풍속, 언어가 주내용이었다.

관광에서는 고궁과 문화유적을 따라 경주 일원과 울산 공업지대, 포항 종합제철등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낙후했던 조국의 어제를 생생히 기억하는 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한 모든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20여년만에 찾은 조국은 눈을 의심하리만큼 변화되어 있었다. 같이간 학생들도 새로운 감회의 표정이었다. 낙후하고 미개한 나라로만 착각했던 과오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고국에서 나는 "왜 동포들의 2세들은 모국에 와서도 모국어 사용을 기피하는가?"라는 질문을 곧잘 받았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질문이었으나 나는 한마디로 민족혼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라고 간단히 단정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글교육의 당위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차 별

이 미 영(손힐거주·상점경영)

어릴적에 방학이 올 무렵이면 시골외가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여름, 겨울, 하다못해 봄방학까지도 외가로 달려가곤 했지만 친사촌 또는 이종사촌들은 일년에 한번 올까 말까 했다.

그런데 그 많은 대가족의 밥상이 들어오면 내눈은 실눈이 되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손자손녀인데 누구에게는 쌀밥을 주고 누구에게는 보리를 섞어주느냐는 차별대우에 대한 반항이었다.

할머니는 "넌 내집식구지만 저애들은 우리집 손님이니까" 하시면서 "호랑이 멀써 물어갈년"이라고 나를 나무라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 한남자의 아내요, 두 아이의 에미가 된 지금도 나에게는 그 「차별」이란 단어를 보면 알러지를 일으킨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보고 "일본의 쓰레기이며 암적인 존재"라고 모욕을 주었다. 차별이었다.

현재 토론토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업인협회는 많은 일을 맡았다. 코리안·쥬이시라는 자랑스럽기조차한 별명이 붙은 700여개 코너스토아의 주인들인 우리 이민1세들은 캐나다제 뿐아니라 홍콩, 일본, 타이완제품을 많이 판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사실이다.

해방 3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네들의 물건을 왜 내손으로 팔아주어야 하나? 우리는 우리 물건을 파는 세일즈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곧 탄생되는 실협의 협동조합을 통해 이 캐나다 땅위에 Made in Korea 제품이 판치기를 기대한다면 속좁은 여자의 차별이라고 핀잔하실 분이 계실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의 노력만 한다면 대를 물려줄만한 구멍가게가 될런지도 모른다.

로 사 리 오

황 상 규(미시사가 거주)

직선으로 솟던 연기,
중천에서 흩어지네.
겹겹이 덮인 먹구름에
기마저 눌렸던가.

구름 뚫고 내려질
한 가닥 거미줄을
휘어잡을 기운마저
잃지는 않았거늘

줄줄이 맺어있는
쉰아홉 알알 잡고
따르고 또 오르니
구름 위에 서 있네.

나의 생각

서 윤 정(토론토 거주)

여자라면 누구라도 어느 여자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싶은 충동이 잠재하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나역시 그렇지 못한 것에 자각하고 외모보다도 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을 실감한다.

요사이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돈! 이 물질이 무엇일진대 우리의 웃음을 앗아가고 나 마저도 잃어버리게 할까?

난 더욱 난처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우기에 수선스레 펜을 부여잡고 흰 백지에 글을 쓰기에 애를 쓴다. 써내려가면서 반성도 하고 냉정해 지기도 하며 머리가 맑아온다.

냉정하다 못해 비정한 사회가 되더라도 인간성 하나만은 잃지 않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노력해야겠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우리 외환은행

김 양 평(캠브리지 거주)

토론토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한국거리로는 약 400리정도) 401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100Km로 약 한시간반정도 달리면 아름다운 정원도시 캠부리지(Cambridge)시가 보인다.

캐나다에 이민와서 처음 정착한곳이 이곳이고 보니 이제는 제2고향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서도 받아보는 한국일보 지상을 통하여 한국외환은행 개점 소식을 들었을때 무척 감회가 깊었다.

폭풍우 속에서도 호젓이 피어나는 한송이 장미같이 감격스런 소식이었고 한국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얼마전 모처럼 본점이 개점하고 있는 퍼스트·캐나디안·플레이스(First Canadian Place)를 찾아 갔었으나 처음 길이라 찾기도 힘들었고 도저히 정차(Parking)도 할수 없어 포기하고서 토론토 시내 운전연습(?)만 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그러던중 또 다시 Bloor지점 개점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기뻤다.

한국인들이 근무하니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기대에서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었다.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12월 어느날 지점을 찾아 우선 xx불짜리 적금을 들고 또한 체킹·어카운트(Checking accout)를 오픈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소감은 소위 창구여직원(텔러)들의 친절은 캐나다 어느 은행 여직원들에 비한다면 제로(영)에 가까운 봉사정신들을 가진것 같아 저으기 실망하고 말았다는 점과 더우기 텔러보다 조금 높은듯한 한 직원의 눈초리는 입맛을 쓰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래도 나는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 자랑스러운 은행을 찾는 만족한 기분으로 쓴맛을 참으면서 물러나온 적이 있었다.

그후 또다시 내 거래은행에서 xx불을 찾아 이번에는 보통예금을 하러갔었다. 때마침 입구에서는 교포 한분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같은 민족끼리 이럴수가 있느냐?하면서 뭔가 마구잡이로 항의하고 있었다.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xx불을 저축좀 하여야 겠다고 하니 직원이 웃음은 커녕 말한마디 없이 사무적으로 처리한 다음 안녕(Good-bye)하는 식이다.

텔러보다 조금 높은듯한 여직원은 역시 전번과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고개를 휙 돌리는 것이었다.

누구나 느끼듯이 이곳의 캐나다 거래은행에 들어서면 우선 하이! 킴(Kim)하면서 고객에게 친절하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하고 설명도 해준다.

도대체 동서 차이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를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있어서 친절의 미덕이 없다면 공신력도 떨어질 것은 뻔하다. 또한 체킹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매달 보내준다고 하고선 5개월이 가까운 이날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럴수가 있을까? 사무착오일까?

모든 한인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은행을 찾을때 누구나가 이같은 감정이라면 어떻게 될까?

또한 좀더 용모단정하고 차원높은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사무실의 분위기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일때 더욱 크게 성장할수 있으리라 본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 지난5일로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桑港의 명물…금문교開通50주년

통행차량 9억대…수입만도 2천1백30만달러
투신자살750명, 올여름 6천만弗들여 재포장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지난5일자로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몇몇 지진학자들은 이 거대한 다리가 와해할 정도의 지진을 예견하기도했으며, 군사관계자들은 적으로부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될 까 걱정했고, 납세자단체들은 금문교건설이 경제적 견지에서 불합리하며, 빚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들 모두의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전장 8천9백81피트의 길이에 폭이 90피트인 금문교는 완공될때까지 4년6개월이 걸렸으며 지금까지 9억대의 차량이 이다리를 건넌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지난한해동안 건너간 차량은 3천7백만대, 통행료수입이 2천1백30만달러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만 입구위로 7백46피트높이의 철탑 2개에 매달려 있는 이다리는 세계기술공학사상 최고의 업적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중년기의 금문교는 이제 서서히 노년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 다리위 도로사정이 너무 나빠져 다시 포장해야할 때가 왔다.

오는 여름께부터 시작할 예정인 재포장작업의 비용은 다리건설당시에 들었던 비용의 2배에 가까운 6천만달러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최고 명물인 금문교는 또 음울한 매력의 단면도 지니고 있는듯, 지금까지 이다리위에서 떨어져 투신자살을한 사람이 7백50명이 넘기때문이다.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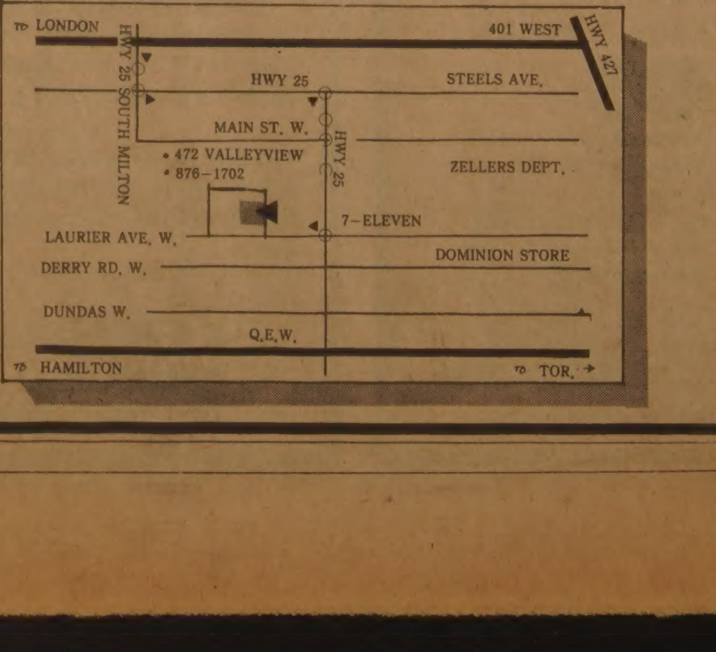
종중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고 희망에찬 복된해 계해년을 맞이하여 일가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종친회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일취월장 상호부조하며 낯서른 이민생활에도 외로움을 잊으며 재미있게 모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조령숭앙과 일가단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삼감사드립니다.

금번 새해의 첫 월례유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일가회원으로부터 여러번 문의전갈 또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마는 일일이 통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일괄안내 드립니다.
부디 소만합석하옵기 학수고대합니다.

◇일　시 : 1월22일(토) 오후7시
◇장　소 : 약도참조.
◇연락처 : 451－4450, 453－7748



재카나다경주이씨종친회
회장 이 승 영

코고는 사람들 조심

잠자면서 호흡이 정지되고있다

致命的인 수면病 애프니아

美國에 1백만명이 앓고있다

10초내지 1분씩 하룻밤새 수백번 되풀이
본인은 전혀못느껴…두뇌손상등 부작용도
숨구멍기형원인, 낮에 졸고 심하게 코골아

미국인들가운데는 1백만명이상이 자각을 못하는 치명적인 수면병인 애프니아에 걸려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애프니아는 호흡정지를 뜻하는 그리스말인데 이병에 걸리면 10초내지 1분이상동안 계속적으로 호흡이 정지되며 이러한 단속적인 호흡정지현상은 하룻밤새에도 수백번씩이나 되풀이된다. 그러나 환자자신은 호흡정지를 자각하지 못하는것이 특징이다.

환자자신은 숙면을하고있다고 생각하기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것이다. 환자들은 대낮에도 왜 자꾸 졸음이오는지 이해를 못한다. 간밤에 숙면을 한것으로 알고있는터라서 대낮에 졸음이 오는것은 혹시 암같은 중병에 걸린 때문이 아닐까하고 걱정을하지만 실제로 그렇지않고 만성적인 성인수면 호흡정지에 걸려있는것이다.

가족중에 호흡정지에 걸린사람이 있으면 코고는소리가 너무크기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다. 시끄러운 코고는 소리는 호흡정지를 알아볼수있게하는 손쉬운 증세가된다. 또한 호흡정지의 증세로는 대낮에도 지독하게 자주 졸음이오고 비만증과 고혈압증현상이 나타나는것을 들수있다.

호흡정지를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심장박동 부조증, 두뇌 손상, 심장마비및 사망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네소타, 아이오와및 오레곤주에 이민온 라오스인들중 최소한 10명이 야간에 의문의 사망을한 원인도 바로 호흡정지이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라오스인들은 25세~50세사이의 남성들로서 모두가 건강한것으로 보였었다. 그러나 여성들이라해서 면역이 있는 것도 아니며 증상은 젊은이들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지않고 깨어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있으며 호흡정지병에 걸려있다는 진단를 받고는 깜짝 놀란다』고 뉴욕에 소재한 몬트피오르병원부설 수면·각성·혼란증 치료센터의 디렉터인 미첼·도프박사는 밝히고있다.

성인들의 수면호흡정지는 유아들의 호흡정지와는 전혀다른 병이다. 유아호흡정지는 호흡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신경계에 결함이 생겨 발병하는 것이나 성인들의 호흡정지는 수면중 상부 숨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것이다.

유아호흡정지는 유아돌연사망증후군(SIDS)의 한 원인이며 호흡정지에 걸린 유아들은 SIDS의 위험성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및 유아호흡정지는 불면증및 기면발작(가벼운 간질병)과는 다른 형태의 수면병이다.

호흡정지환자는 미국내에 1백만명이 있는것으로 최근발간된 미국의학협회 정기간행물은 밝히고있는데 성인호흡정지는 많은경우가 구강, 식도및 숨구멍등의 선천적및 후천적인 기형때문에 발생한다.

미국의학협회정기간행물에 기고한 한논문에서 시카고의 미첼리스병원에 근무하는 찰스F.새벌슨박사는 혀고정장치로 자신의 호흡정지를 고치는데 큰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있는데 일부의사들은 복싱선수가 경기중 사용하는 마우스피스와같은 이 혀고정장치를 환자가 잠잘때 사용하는데는 고통이 따른다고 지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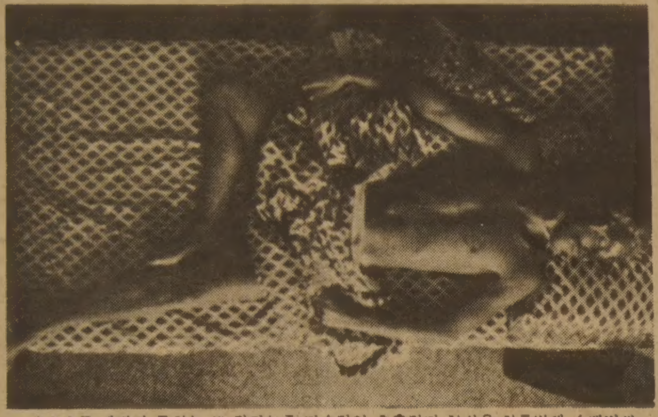
호흡정지를 다이어트, 체중감소및 약물사용등으로 치료할경우는 효과가 신통치 못하며 기관절개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것. 또한 수면제복용은 호흡병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폭음과 심한 흡연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킨다는것이다.

성인호흡정지는 환자의 증상이 영국소설가 디킨스의「피크위크 페이퍼」에 나오는 잠만자는 뚱뚱보소년 조의 병세와 같다고 해서 피크위크증후군으로 알려져있으며 비만저환기증후군(OHS)으로 불리우기도한다.

그런데 피크위크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있다.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있는 스크립스임상진료연구재단부설 수면병센터책임자인 미틀러박사는 『대부분 호흡정지환자들은 20대1의 비율로 40세이상의 비만형들이며 비만형이 아닐경우는 짧은 근육형 목을 가지고있거나 코를 유난스럽게 고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흡정지환자들은 고혈압증세가 있거나 발목과 수족이 툭 튀어나왔거나 수면부족에 걸린사람들일 경우도 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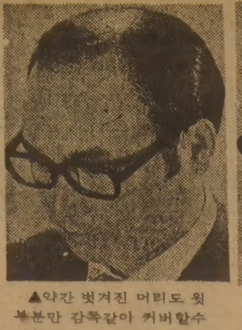
『수면호흡정지에 걸린사람들은 빗자루에 머리를 기댄채 선자세로 꾸벅꾸벅 졸때가 있으며 잠을자서는 곤란할때도 졸게 된다. 많은 환자들은 실제로 식탁앞에서나, 직장에서나, 변소에서 졸기도한다. 따라서 그들이 의사를 찾을때는 사회적,직업적, 건강상의 문제들이 이미 발생한 뒤인 경우가 흔하다』고 미틀러박사는 소개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채 잠자는중 단속적인 호흡정지 현상을 하룻밤새 수백번씩 되풀이하는 수면병 애프니아 환자가 미국내 1백만명이상이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로 假髮을 만든다

日서人氣 값싸고 진짜頭髮과 다름없어



▲약간 벗겨진 머리도 윗부분만 감쪽같이 커버할수있다.

▲자연머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가발.

컴퓨터에 의해 싼값에 만들어진 가발이 크게 인기를 모으고있다.

머리가 벗겨져 고민하거나 보다 젊게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가발을 사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발은 외모로 보아 자연적인 머리와 조금도 다름이없고 얼굴생김새와 나이, 개성에 따라 알맞게 모양을 낼수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쩍 늘고있다는것.

모발의 질이 부자연스럽고 쓰고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종래의 가발을 이 컴퓨터가발이 모두 해결해 주고있는 셈이다.

대머리의 사람은 일단 주문을하면 머리와 얼굴모양, 머리의 곡선부분, 피부색깔등 자세한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 그사람의 외모에 맞게 가발을 만들고있다.

나이든 사람은 머리를 반쯤 희게하거나 두정부분만 약간 벗어진 가발로 만들어 주기도한다.

특히 이가발은 인공모발을 전혀쓰지 않으며 특수한 식모법을 채택, 자연미가 있다는것이 특징.

종전의 가발은 모발이 두피에 직각으로 심어졌으나 컴퓨터가발은 특수섬유질 바탕에 모두 비스듬히 심어진다.

또한 가발에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지는것을 방지하는 특수처리도 가능하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형사 닉·놀티(좌)와 범법자 에디·머피는 억지동업자가 돼 범인을 추적한다.

새 映画

48시간 (48HRS)

白人형사와 黑人범죄자 동업자아닌 동업자로…

스포츠카처럼 빠르고 맵시 있는 영화다. 무자비한 폭력물에 유머를 알맞게 섞어 액션과 코미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영화보다 스피드가 있어 즐거운데다가 한조가 된 백인 형사 닉·놀티와 흑인 범죄자 에디·머피가 똘똘뭉쳐 생동감 넘친 연기를 해내 보기 드물게 흥을 돋구는 오락영화다.

샌프란시스코 교도소에 수감중인 흉악범 제임스·리마가 어느날 간수를 사살하고 탈출 시내로 숨어든다. 이를 잡기 위해 술전달이며 고지식한 형사 닉·놀티는 한때 리마의 패거리였으나 형을 살고 있는 에디의 도움을 반강제적으로 요구, 감옥밖으로 끌고나와 동업자아닌 동업자가 된다. 시간은 48시간.

여기서부터 색깔과 성격과 신분이 판이한 둘은 싫으나 좋으나 한몸이 돼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헤집으며 다니는데, 범죄액션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추격, 총격전, 지하철 정거장에서의 추격등이 번개처럼 펼쳐지며 숨가쁘다.

여기서 재미를 듬뿍 더 하는 것이 에디의 유머가 가득한 대사와 자연스러운 연기. 그는 아주 능청스럽게 여유만만 거칠면서도 인정있는 닉의 우람한 연기를 압도해 관객의 태반이 넘는 흑인들의 폭소와 박수를 잔뜩 받는다. 물론 약방의 감초격으로 섹스와 여자가 등장하지만 그저 작품의 소도구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아 이 작품은 완전 남성캐스트의 드릴 있는 액션영화로 성공, 돈깨나 벌어들일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영화가 너무 바람개비 같이 돌아가다 보니 플롯에 구멍을 내기도 하는데 도대체 형사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 연인의 집에 숨어드는 머저리 같은 범죄자가 어디 있는가. 에디·머피의 연기가 당당하면서도 코믹한 것과는 달리 제임스·리마의 연기는 진짜 살인마를 대하기나 하듯 섬찟 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연기다. 감독 월터·힐. 등급R로 파라마운트작.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S A PAIN IN THE NECK.

R.N. 시험을 치른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간호원 아파트에 함께 시험을 본 후 역시 발표를 기다리는 미국인 간호원 지망생 친구가 놀러왔다. 시험에 관한 대화 도중에 미국인 친구가 It's a pain in the neck,이라고 하자, 목에 pain(통증)이 있다고 오해한 교포 간호원이 Is it serious?(심하니?)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It's a pain in the neck,이란 「싫지만 할수 없이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 It's a sometheing one doesn't like but must be endured anyway,를 가리키는 말이니, 결국 그 미국인 친구가 한 얘기는 「시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It's pain in the neck,을 줄여서 It's a pain,이라고 만도 하며, 같은 뜻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는 It's a drag,가 있다. 「일요일인데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지겨운 일이다.」를 말해본다면, It's a real drag when I have to work Sundays, 이같이 하면 된다.

A: Is Janice working overtime tonight?
B: Yes, because the second shift person is late,
A: Does she get paid for it?
B: No, she doesn't,
A: That's a real pain in the neck,
B: She doesn't want to do it, but she has to,

A:재니스가 오늘밤 오버 타임하나요?
B:네, 2교대조 사람이 늦었기 때문이죠.
A:시간외 근무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되나요?
B:아니오.
A:정말 지겨운 일이군요.
B:그녀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되지요.

*endure:견디다, 참다. overtime:규정 시간 외 근무, 초과근무. shift:근무의 교체, 교대조.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83년도 신세계 단체관광계획

	성지순례	구라파관광
출 발 귀 환 기 간	1983년5월6일(금) 5월19일(목) 14일	1983년7월23일(토) 8월 8 일(월) 17일간
방문지	성지 7박8일 애급 2박3일 로마 3박4일	8개국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모나코,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요 금	$2,250(2인1실)	$1,960(2인1실)
신 청	1983년3월31일 잔액불입	등록 : 1983년5월31일 $300불입 마감 : 6월25일 잔액지불
기 타	한국인 안내자 동반 교황알현 알선	한국인 안내자 동반

■상기요금은 토론토 기준이며 타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합니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知性의 요람」서 知識을 살찌운다

교육의都市「보스턴」의 한국인 留學生

▲MIT대학교정에 모여앉아 미래를 향한 지식을 살찌우는 한인학생들.

"人間수업에 좋은기회 '문제學生'은 없어
未來향한 意志속에 每週 즉석 토론회도
이곳에 몸담으면 공부 안하고는 못견뎌
하바드·MIT·보스턴大등 名門大 즐비

교민1萬名線…대부분이 學生가족
商業보다 醫師·學者·職場人 많아

2년전부터 계속늘어, 生活은 모두 安定圈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한인사회는 미국내의 다른지역 교포사회와는 다른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뉴잉글랜드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이 미국의 전통적 교육·문화도시라는 점에서 이곳 한인사회도 50년대의 유학생 출신들로 형성되어, 미국내 어느지역보다도 미국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곳 교포들 역시 미국대학을 졸업했거나 최소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점때문에 교포들의 생업도 로스앤젤스, 뉴욕, 시카고 등지와는 달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미국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에는 의사, 학자가 많다』는 말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래서 보스턴은 다른 지역과 같이 교포상가가 밀집돼 있는 한인타운도 없으며, 단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교포들이 보스턴 근교의 상류 주거지역인 Lexington, Newton 등지에 비교적 많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스턴 한인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특색은 학생들이 많다는 점.

보스턴지역의 전체 한인인구를 약 1만여명으로 추산한다면 이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 5천명이 학생과 그들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보스턴 지역의 60여개 대학중 명문대학이라고 치고 있는 대학에는 한인학생이 없는 대학이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에서도 하바드, MIT, 보스턴대학교에 한인학생이 가장 많고 이밖에도 어느 대학을 가나 한인학생을 쉽게 마주 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스턴이다.

보스턴 한인사회는 학생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그래서 보스턴의 경우, 정확히 말하자면 학생들은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아니기 때문에 「교포사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인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한 교포는 말하고 있다.

한인학생들은 현재 하바드에 약 250명, MIT에 근 250명, 보스턴대학교에 약 250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밖에도 터프츠, 매서추세츠 주립대학, 보스턴·칼리지, 웰슬리·칼리지등에도 비교적 많은 숫자의 한인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이 숫자에는 교환교수, 연구원등도 포함돼 있다.

보스턴에서 한인학생이 가장 많은 Harvard, MIT, B.U. 만 보더라도 이 세학교의 한국학생 수를 합치면 750명이 넘는데 여기에 가족들을 합치면 그 숫자는 2천명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보스턴 지역 한인학생들의 성향을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3개 대학의 한인학생 분포는 학부가 8대 2 정도로 교포학생이 본국 유학생보다 많은대신 대학원은(박사학위 과정 포함) 3대 7의 비율로 본국 유학생이 다수이다.

이러한 경향은 본국에서 유학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본국에서 학부까지 마쳤거나 혹은 학부를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교포 학생들은 70년대초의 급증했던 이민물결에 부모들을 따라 이민온 교포 2세들로서 아직 대학원 학생 연령층이 많지 않은데다가, 또 한가지는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는 직장을 찾는 교포학생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일은 보스턴지역의 한인학생수가 약 2년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경향은 특히 금년들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하바드의 경우 82~83학년도 학부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은 40명을 넘어 그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30%를 상회하고 있고, MIT역시 금년 학부의 한인학생 증가율은 30%를 넘는다.

이중에서도 보스턴대학교의 한인학생 증가율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가장 높아 82~83학년도 한인학생 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보스턴 대학교는 수년안에 미동부지역에서는 한인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스턴대학교의 한인학생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는 보스턴이 교육환경이 좋다는 점에서 본국 유학생이나 교포학생이나 이곳에 유학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입학이 까다롭고 등록금이 특히 비싼 하바드나 MIT보다는 보스턴대학교를 택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다가 이학교가 최근들어 연세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이병철 삼성회장에 대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등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보스턴지역 각 대학의 한인학생수가 근년에 특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본국정부가 작년부터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사실상 전면 자유화했다는 점.

둘째는 교포사회적 측면으로 자녀교육열이 특히 강한 한인교포들이 어느정도 기반을 잡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민교포 2세들중 대학생 연령층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하간 명문대학이 많고 면학분위기가 좋은 보스턴에 한인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탓할 일이 아니나, 한가지 염려스러운 일은 본국에서의 유학자유화 조치이후 자녀들을 해외유학 시키지 못하면 상류층 대열에 끼일 수 없다는 허영심에서 무리를 한다거나 교포들일 경우 자신들이 미국에서 공부해 보지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열등감에서 나온 지나친 욕심, 혹은 자식들을 억지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 말년을 자식덕에 편히 지내보자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스턴의 한 교포는 본국 유학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로 『본국의 고위관리나 부유층들중 [illegible]들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식들을 미국에 미리 유학보내 미국에 하나의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이러나 저러나 보스턴에 유학중인 한인학생들은 본국유학생이거나 교포학생이거나 모두가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어 소위 문제학생이 한명도 없다는 것도 보스턴 한인학생 사회의 자랑거리중의 하나이다.

우선 보스턴이라는 도시자체가 교육도시인데다 일류대학이 기라성처럼 서로 전주고 있어 이 도시에 일단 몸을 담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들에게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공부 따라가기가 힘들 지경이어서 다른 생각을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의 여가생활이란 기껏해야 건강을 위해 테니스나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부 학생들의 경우 1년에 몇번있는 한인학생들의 파티나 피크닉 또는 운동시합에 참가하는 것이 한인학생들과 어울리는 기회의 전부이다.

또 보스턴에 유학중인 한인학생들 중에는 본국의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대사, 대기업주등의 자녀들도 적지 않으나 이들역시 자신이 누구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사실은 아예 밝히지 않은채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다.

보스턴의 한인학생들을 3가지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도 있다. 그 하나는 학부학생, 또하나는 대학원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교환교수(Visiting Scholar)거나 Visiting Fellow 혹은 Research Associate자격의 연구원과 박사학위 취득후의 연구원.

이들중 세번째인 교환교수 혹은 연구원은 엄밀히 말하자면 학생신분이 아니다. 특히 하바드대학에 많은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 중에는 본국 학계의 권위있는 전·현직교수,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교수, 전직 정치인, 전·현직 정부관리, 중견언론인, 기업체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거의가 본국에 가족들을 그대로 남겨둔채 단신 이곳에 와 1~2년간의 연구생활을 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본국에 있을 때와는 딴판이다.

허름한 학생차림에 자신들의 숙소와 학교 연구실을 왕래하는 것이 거의 매일 일과이고 밥도 손수 지어먹고 있어 『공부뿐만 아닌 여러가지 면에서 인간 수양의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한 전직 정치인은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집착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본국에 대한 향수나 미련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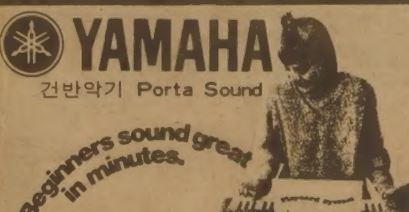
이들은 요즘에는 하바드대 한국연구소(Korea Institute)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여는 한국에 관한 세미나인 Korean Colloquium에 참석한 뒤 하바드·스퀘어 부근의 찻집등에 모여 즉석 토론도 벌이는데 이때의 분위기야말로 본국의 어떤 세미나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지하고 열띤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 지성의 요람이라는 하바드·스퀘어, 이곳의 공기를 매일 마시면서 사는 한국인들 역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한 의지속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지식을 살찌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스턴·최승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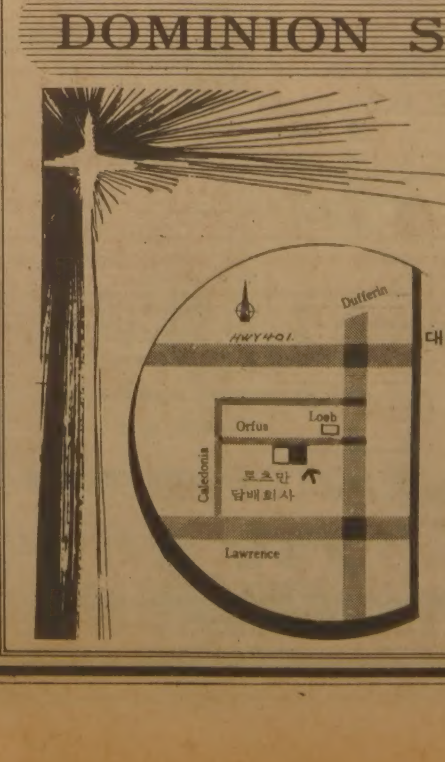
▲자녀를 가진 부부학생들도 보스턴에는 많다. 이들은 아기를 들쳐업고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기도한다. 남편들은 베이비시팅에 능숙해져 「보스턴학창시절」의 고생을 나중에 사회에 나간후 잊지 못한다.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LUCAS YUM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ALLEN DUMA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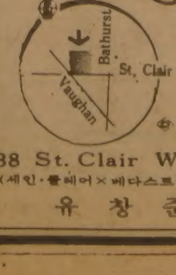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래 올림.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656-0456
(세인·클레어×베다스트)
유 창 준 654-6609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퍼스트 클라스型
이코노미 클라스型
오리발型
비밀型
愛情행각型
번개型

投宿·비행기票등 거의 베벌리힐스 에이전스서 代行
이름난 에이전트「톰·스타우트」는 巨物級은 도맡아서

스타·가수등「有名人」들 旅行 萬華鏡

얼굴 팔리기 싫어하는 배우는 귀신도모르게 비행기태우고
걸프렌드와 密愛旅行땐 本夫人 눈속임도 척척

▲라이언·오닐과 파라·퍼셋같이 사진기자들을 싫어하는 배우들은 베벌리힐스 여행에이전트들의 도움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비행기에 탑승한다.

일년중 어느 한날이라도 헐리웃의 유명인사들이 세계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은 날이 없다.

리차드·버튼은 멕시코에, 로버트·레드포드는 런던에, 리차드·지르는 파리에, 바바라·스트라이샌드는 호주등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올해에도 이들은 세계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것이다.

촬영을 위해서건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건 헐리웃인사들은 어느 직업인들보다도 많은 여행을 한다.

그러나 스트라이샌드가 공항택시를 잡기위해 손들고 있는것을 본적이 있는가.

또는 레드포드가 티켓을 사기위해 줄서있는것을 본적이 있는가.

일반사람들과 달리 이들 스타들은 여행경비가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으며 따라서 북킹, 호텔예약등에도 본인이 신경쓰는 일은 없다.

리즈·테일러가 구찌가방을 들고 휴양지에 나타났을때, 호텔에 방이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다.

배우들의 여행은 왜 그렇게 순조로운가. 모든 배우들의 퍼스트·클라스여행에는 베벌리힐스의 여행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만달러 비즈니스인 이들 베벌리힐스여행사들은 그만큼의 돈을 벌기위해 가끔 곤욕도 치른다.

배우중에도 경비를 안내려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스튜디오나 제작회사에서 지불할것이라고 말해 그쪽에 요구하면, 그런 경비는 지불할수 없다며 양쪽에서 모두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헐리웃 유명인사를 위한 여행업무는 재미있고 수입이 많다.

예를 들면 이들의 하루 휴가비용은 유모와 자녀를 위한 3백달러짜리 방, 관광을 위한 헬리콥터 대절비, 가족놀이를 위한 요트대절비등등으로 평균 미국인의 일년수입보다도 훨씬 많이 들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여행에이전트들이 배우와 같이 베벌리힐스 맨션에서 롤스로이스를 굴리며 살수있는 이유이다.

개인비서, 집안의 하인장등을 제외하고 배우들의 사생활을 여행에이전트를 만큼 소상히 알고있는 사람들도 드물다.

때문에 배우들을 생대로 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배우들중에는 개인돈으로 여행을 할때 이코노미티켓을 사면서도, 자기가 유명인사이므로 결국은 퍼스트·클라스에 앉아가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퍼스트·클라스 티켓을 사줄경우, 그것을 이코노미·클라스티켓으로 바꾸어 아이들과 유모도 함께 갈수있도록 하는 배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신문기자들에게 알렸다가는 그 배우손님은 놓치고 만다. 제인·폰다도 전에 퍼스트·클라스티켓을 이코노미·클라스티켓으로 바꾼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자에게 발설했던 에이전트는 결국 단골이었던 폰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베벌리힐스의 에이전트들중에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톰·스타우트.

"TV 女優중의 女優예요"

▲「Us」지에 의해 82년도 가장 인기있는 데이타임 TV여배우로 뽑힌 수잔·루치양, 남자배우로는 「다이너스티」의 존·제임스가 뽑혔었다.

전 TWA마케팅 담당 중역이었던 스타우트는 올해에도 4천만달러의 북킹실적을 올렸다.

그는 단지 티켓만 파는것이 아니다.

VIP라운지에서 유명인사의 부인이 남편에게 굿바이·키스를 할동안, 그의 정부를 몰래 비행기안에 태워놓는 음모(?)에도 노련한 솜씨를 보인다.

그의 고객은 루실·볼, 링고·스타, 프랑크·시나트라, 쉐등 셀수없이 많은데, 어느 크리스마스때 시나트라는 50달러지폐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스타우트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LA공항에서 보낸다. 그의 포켓에는 매일 10여권의 배우 또는 영화사중역들의 여권과 티켓이 두둑히 들어있고, 비퍼가 쉴새없이 울린다.

한번은 어느 코미디언이 부인몰래 걸프렌드와 하와이여행을 떠났는데 그 걸프렌드는 페트 강아지도 함께 데리고 갔다. 하와이에서는 개에게 검역을 실시하므로 강아지를 캐늘에 수용했는데, 그 강아지를 보러 매일아침 코미디언과 정부가 캐늘에 드나드는 사진이 하와이신문에 실렸고 드디어는 LA신문에도 실리게 된것. 결국 부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엔 이혼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헌데 사건이 이렇게 까지 번지게 된것은 이들이 하와이로 떠나는 날 하필이면 스타우트가 결코 흔치않은 휴가를 얻었기때문.

『그날 내가 있었다면 검역을 당하지 않게 할수있었는데…』라고 아쉬워하는 스타우트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하는 라이언·오닐과 파라·퍼셋이 여행을 할때 스타우트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비행기 티켓접수인의 눈에도 띄지않게 이들을 비행기에 태웠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느냐는 물음에도 스타우트는 윙크만 할뿐이다.

스타우트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폴란스키감독이 감옥대신 해외도피를 했을때에도 스타우트가 주선했으리라는 소문이다.

스타우트의 짓궂은 고객들중에는 워렌·비티와 조지·해밀톤도 들어간다.

『한번은 비티가 매진된 티켓을 구입해달라고 해서 구해놓았죠. 그랬더니 VIP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눈에띈 여성을 소개시켜줄수 없느냐고 부탁, 둘을 인사시켜주었지요. 결국은 비행기를 안타고 택시로 두사람이 시내로 도로 나갔어요』

해밀톤도 비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스타우트는 덧붙인다.

잊을수 없는 한국설날

半평생을 한국서보낸 킨슬러牧師

42년간 한국서宣教…LA近郊서 여생보내
정월초하루 음식나눠먹는 情景 눈에 선해
한국서 낳은 아들 그의뜻이어 한국서奉仕

한국에서 42년간 선교사로 일하다가 귀국 은퇴한후 LA근교에서 조용히 여생을 즐기고 있는 프란시스·킨슬러목사(78)는 한국의 정월 초하루가 다른 어느나라의 정월 초하루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갈다고 회고한다.

지금부터 55년전 24세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간 킨슬러목사는 매년 설이되면 동네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 먹어보라고 주며 친절을 베풀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케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한국인은 친절하며 아름다운 생활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술회하는 킨슬러(한국명·권세열)목사.

이 한국인의 아름답고 친절한 마음씨를 표현하는 생활풍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다.

그는 1928년 평양에 도착 숭실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교회를 세워 선교활동을 벌여왔으며 성경구락부를 설립 문맹퇴치와 아울러 복음을 전했다.

그는 해방도 한국에서 맞았고 6·25사변도 한국에서 맞았다.

해방후 잠깐 귀국했던 것 이외 그는 대부분 그의 청년및 장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으며 1970년 미국으로 귀국하기까지 꼭 42년간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는 일제하의 한국에서부터 1970년도까지 한국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이 신비로와 한국을 자원했으며 한국이 좋아 이름도 권세열이라고 바꾸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한국어가 능통해진 그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시작한 청소년들의 성경구락부가 지금은 어엿한 정규학교가 된 곳도 있으며 전국에 걸쳐 교회와 직장에 부설된 성경구락부를 졸업한 한인들이 무려 10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금도 전국의 성경구락부 산하 청년들은 체육대회를 가지며 12월에는 영락교회에서 졸업식도 갖는다.

권목사는 지금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나 한국에서 출생 성장한 그의 맏아들이 한국에서 그의 선교사업을 이어 맡아하고 있다.

그는 요즘도 남가주지역 한인교회에서 가끔 설교도 한다.

催眠으로 다이어트

佛재봉사, 3백시간 계속 수면시도

22파운드 줄이기 목표

(니스, 프랑스-AP) 조깅, 미용체조등 스포츠에서 각종 다이어트까지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재봉사 에이드리앙·세씨니여인(37)도 그중 한명. 세씨니여인의 시도는 최면에 걸린채 3백시간동안 잠을 자는 일이다.

버진디지방 한호텔방에서 최면사에 의해 최면에 빠지면서 지난 16일 시작된 세씨니여인의 「살빼지기작전」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3백시간의 긴잠을 자는 이유는 그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단식하는일을 쉽게하기 위한것, 현재 체중 1백36.5파운드인 세씨니여인은 3백시간의 단식에서 22파운드가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씨니여인을 도와주고 있는 최면사 자키·노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어 장기수면에 빠지게 함으로써 금연이나 우울증해소를 효과적으로 치료했다고 주장. 그러나 아직까지의 최장수면시간은 2백시간이었다.

조깅수트 비슷한 편한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은후 이어폰을 통해 노구가 들려주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특수음악을 들으며 잠에 빠진 세씨니여인은 오는 28일이면 「날씬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날 예정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10년전 榮華를 되찾자"

뉴스위크師團 꿈틀

작년까지와 달리, 뉴스위크는 올해부터 많은 변화를 보일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일관적인 뉴스매거진들에서 벗어나 좀더 인간지향적이 될것이다.

이것은 지난연말때부터 시작된 뉴스위크의 변화를 추적해볼때 쉽게 예측할수 있다.

지난연말부터 뉴스위크는 이같은 조짐을 여러번 보였다.

팔레스타인수용소난민학살사건과 그레이스왕비사망이 동시에 발생했을때에도 타임스지가 학살사건을 표지로 다룬반면 뉴스위크는 그레이스왕비를 표지로 썼다. 그런가하면 현재의 미소관계에 아무 직접적 관련도 없는 전국무장관 키신저를 표지모델로 하고 그의 일가견을 대폭 게재했으며, 다음에는 불임을 특집으로 하고 곰인형을 표지에 실기도했다.

이것은 사태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보수적이 되는 지금까지의 뉴스매거진 특성과 정반대는 현상이다.

정세가 심각하면 할수록 뉴스매거진은 컬러사진을 더욱 많이 게재하거나 모든 기사에 기자의 이름을 넣기시작하는 것이 통례였으며, 뉴스매거진들의 표지는 독자들도 거의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지난연말부터 전통적인 뉴스매거진 형태에서 벗어나

타임과 뉴스위크는 커버는 물론 기사내용까지 비슷하고, 이에반해 US뉴스&월드리포트는 좀더 보수적이고 분석적일 뿐이었다.

10년전만 해도 뉴스위크는 가장 잘 팔리는 잡지중의 하나였다.

60년대에 타임지보다 월등히 판매부수에서 뒤졌던 뉴스위크는 70년대에 부수를 배로 늘렸고, 광고단가는 타임지보다 낮았지만 더많은 광고를 실을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뉴스위크는 원동력을 잃은듯이 보였다.

불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것은 뉴스매거진들이었다.

US뉴스의 광고페이지는 금년에 4%만이 감소되었으나 타임지는 8%, 뉴스위크는 13%나 떨어졌다.

US뉴스 발행인 윌리엄·단은 자신의 광고가 가장 싸기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다고 풀이하며, 그러나 타임지와 뉴스위크는 동질성때문에 더욱 타격을 받았을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같은 동질성은 전 택사스·먼슬리지와 캘리포녀지 편집국장을 지냈던 빌·브로일스의 뉴스위크편집국장취임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취임이후 뉴스위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있다.

브로일스가 난민학살사건대신 그레이스왕비를 커버로 썼을때 조롱도 받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뉴스위크의 모회사인 워싱턴·포스트사는 뉴스위크의 성격을 바꾸는 대신 완전보수적인 워싱턴·포스트·위클리의 발간여부를 숙고중이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529 BLOOR ST. W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6-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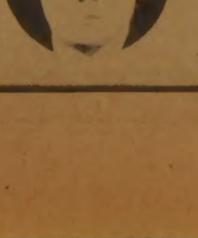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주식불고기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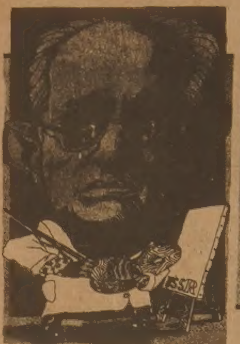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불씨안은「11指導者의 83년 挑戰狀」

對決이냐 和平이냐

레프리「레건」은 시달린다

레건미대통령은 83년에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시련을 겪을 것인가. 중대한 국제문제에서 레건을 괴롭힐 도전자들은 누구일까. 공산진영의 적대자들로부터 서방동맹국의 파트너들에 이르기까지 레건에 도전적인 인물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소수의 도전자들이란, 레건에 부하된 초강대국간의 분쟁해소, 아랍-이스라엘간의 평화정책과 서방세계의 군사및 경제적 단결등과 같은 중대문제들의 성패를 가름시킬 열쇠를 쥐고있는 관련당사국지도자들인 것이다. 1983년, 레건미대통령과 함께 평화냐 대결이냐를 결정하게될 세계지도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11명을 꼽을 수가 있다.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왼편)와 폴랜드의 야루젤스키수상.

▲83년, 레건미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을것인가. 문제의 열쇠는 공산진영부터 서방동맹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평화 위장한 안드로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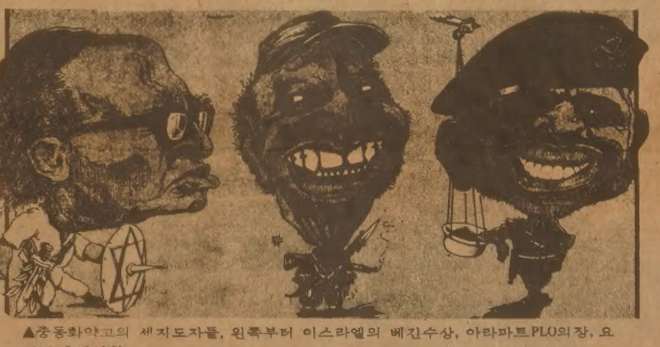
크렘린의 새지도자가된 유리·안드로포프 공산당서기장은 서방측이 공산권에 대한 방어자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을 것 같다. 68세의 소련공산당서기장 안드로포프는 아직도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할 당면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나 레건대통령에겐 만만치 않은 기회주의적 적대자가 될것같다.

안드로포프는 워싱턴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임전태세로 유지시키며 미·소전략 무기제한회담에서도 강경노선을 추구할것으로 보인다.

안드로포프는 서방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중공·소련간의 이념분쟁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자신을 평화주의자로 위장할것 같다. 그렇지만 소련이 아프간, 캄보디아및 폴랜드에대한 개입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한 안드로포프의 평화공세는 별로 씨가 먹지 않을것이다.

폴랜드의 진통사태는 계속될것이다.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은 자유노조솔리대리티를 때려부순후 의기양양해하고 있지만 혼란상태에 빠진 폴랜드경제를 회생시키기위해 인기없는 조치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것이다. 이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게된다면 불안사태가 재발되고 어쩌면 소련의 개입을 부를 가능성이 없지않은것이다.

아프간·폴랜드「잠복된 危機」그대로
中東평화 베긴·아라파트·후세인 손에
「革命수출」쿠바의역할 단념 기색없어



▲중동화약고의 세지도자들, 왼쪽부터 이스라엘의 베긴수상, 아라파트PLO의장, 요르단의 후세인왕.

화약고 中東의 세지도자

평화의 기회를 잡을것이냐 아니면 또 한차례의 아랍-이스라엘전쟁이 발발할것이냐하는 것은 중동의 이름난 3명의 지도자들에 달려있을것 같다.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적대 아랍국들을 격분시키고 레건의 평화중재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강경입장을 포기하려는 조짐을 전혀보이지 않고있다.

69세의 베긴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보장될때까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베긴은 요단강서안에대한 이스라엘의 계속점령과 이지역에서의 이스라엘정착촌 확대를 거부하는 어떠한 평화안에도 반대할것이다.

베긴의 강경자세는 대체로 국내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으나 사법조사위원회가 지난9월 발생한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인 난민대량학살사건에 그와 각료들이 책임이 있는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크게 당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만약 사법조사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내각의 개편, 즉 총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PLO의장 야세르·아라파트에게는 83년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사기로의 해가 될것이다.

PLO군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에의해 처참히 패배함으로써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한다는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PLO전사들은 이스라엘에대한 테러활동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라파트의 외교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겪게 될것이다. 온건정책을 수행, 아라파트가 타협을 모색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승인하게된다면 그도한 아랍국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후세인 요르단왕은 1983년에 중동문제에서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될것이다. 레건은 후세인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재자로 생각하고있다. 그리고 후세인은 이미 아라파트의장을 만나 그가 평화협상을 통해 PLO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을것인가를 탐색한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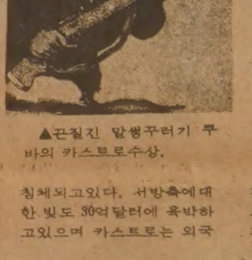
말썽꾸러기의 카스트로

곤질긴 55세의 피델·카스트로는 쿠바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수출하는 말썽꾸러기의 역할을 단념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있다.

하바나의 경우 니카라과의 마르크스주의 정권을 무장시키고 그밖의 중앙아메리카좌익게릴라들을 지원하는일은 레건의 무바- 소련모험주의 봉쇄정책때문에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마르크스주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위해 군대를 계속 파병시키는 부담도 더욱 악화될것이다.

쿠바의 경제는 소련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의 원조를 제공받고있음에도 계속 침체되고있다. 서방측에대한 빚도 30억달러에 육박하고있으며 카스트로는 외국차관도입을 재추진하지 않으면 재정적 마비를 면하지 못하게 될것같다.



▲곤질긴 말썽꾸러기 쿠바의 카스트로수상.

蘇는 和·戰양면作戰추구
美의「강경책봉쇄」열쇠로

▲동양의 두정상-등소평 중공부수상(왼편)과 일본의 나까소네 신임수상(상)

▲서방의 세지도자-윗줄 왼편부터 콜서독수상 미테랑프랑스대통령, 아래쪽은 대처영국수상

불편한 등소평·나까소네

장기간 강자로 군림해온 등소평중공부수상과 일본의 신임 나까소네수상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잠복된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등소평은 강대국외교에 치중하게 될것이다. 그가 열망해온 레건대통령의 중공방문이 1983년에 실현된다면 등소평의 친미노선은 의미를 가중하게 될것이다.

등소평은 소련의 화해제의에 정중하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그는 소련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중공-소련국경선에서 주둔군을 감축함으로써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할것이다.

등에게 부여된 최대의 국내문제는 저방형개혁정책에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친모택동파격파들과 등의정책을 불신하는 군장성들은 개혁정책이 실패할경우 등을 사적으로 비방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등은 더많은 식량과 소비재를 생산하고 새로운 석유탐사계약과 서방측으로부터의 기술및 차관도입을 추진해야할것이다.

군부와 공산당의 개편은 등의 정치적 위치를 강화시켰으나 등은 78세라는 고령과 쇠약해진 건강때문에 언젠가는 은퇴해야할 처지인것이다.

요시히로·나까소네 신임 일본수상은 워싱턴과 무역및 안보문제등을 놓고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외교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시도할것이다. 그러나 성공 전망은 비관적이다.

나까소네는 미국이 일본에대해 미국상품의 수입과 자본투자에대한 장벽을 더욱 낮추고 아시아지역방위에 더욱 중요한 책임을 맡아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것이다.

64세의 나까소네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고있으나 기업불경기, 대규모 재정적자및 잠재적인 정치적 도전자등 국내문제때문에 미국과의 괄목할 타협을 성취하기가 힘들것으로 보인다. 미·일간의 긴장은 조만간 해소될것 같지가 않다.

집안일 바쁜 유럽지도자

대처, 차기 總選준비 바쁘고
미테랑, 赤字누증…발등에불
콜은 權力기반 수습에 열중

유럽의 미국3대동맹국들인 영국, 프랑스, 서독등은 집안일때문에 여념이 없다. 대처수상은 아마도 내년10월에 있을 총선거에서 그의 내핍정책에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물을 계획에 고심할것이다.

14%에 달하는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57세의「철의여인」은 정적인 중도좌파가 너무 분열돼있기때문에 의회를 장악하지못할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대처는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 포클랜드의 장래를 둘러싼 미국과의 신경전과 예산문제에 관한 EEC동맹국과의 불화등에 임시변통외교로 대처하게 될것이다.

66세의 프랑솨·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무역부진, 재정적자 누증및 외국부채증가등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다. 미테랑은 1982년중반에 단념했던 좌익개혁정책들을 다시 채택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온건노선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3월에있을 지방선거는 미테랑에 시련을 안기게 될지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노동불안을 부채질할 구실을 찾을 우려가 있다.

헬무트·콜서독수상이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문제는 3월6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위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여론조사들은 그의 보수당이 승리할것으로 점치고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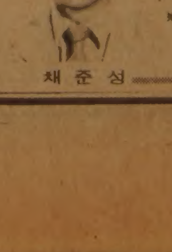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부동산및사업체
매매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플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읍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동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30,000+스탁 렌트: $750
Bloor West 전화: 535-6838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뱅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Davenport & Christie. 3베드룸 타운하우스.
화장실2개. 센트럴·에어콘디션. 개스히팅.
황 순일 481-3443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업머린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 Bed Room 세놓습니다.
(더퍼린 써브웨이 부근)
전화 : 536-8262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터 [illegible]
[illegible] 1993 Danforth Ave. [illegible]
Tel: 698-0633 Mr. [illegible]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illegible]
[illegible] 535-9541 MR. 김